

[종합]

권고사직·해고 5년새 2~4배 급증

경기침체 영향... 광주·전남 작년 2만2천명 실업급여 지급

광주·전남의 직장인 중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직당한 사람이 최근 5년 새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인 광주·화순·담양·나주·장성·곡성·영광·함평·구례 등 9개 시·군에서 경영성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실직자는 2만1천977명으로, 지난해 2001년 1만867명에 비해 2.0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2년에만 1만43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었을 뿐 ▲2003년 1만2천372명(실업급여액 262억원) ▲2004년 1만6천114명(352억원) ▲2005년 1만6천519명(397억원) ▲지자체 2만1천977명(512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청이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도 지난해 2001년 222억원에서 지난해 512억원으로 2.31배 급증했다.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의 경우,

지자체 관내인 목포·강진·장흥·신안·진도·해남·완도·영암·무안 등 9개 시·군 실직자 1만3천637명에게 98억원을 실업급여로 지급했다.

지난 2001년 2천880명에게 15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실직자는 4.74배, 지급액은 6.32배 폭증한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혜자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건설업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실업급여 수혜율(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비율)도 지난해 2001년 16.1%에서 ▲2002년 17.7% ▲2003년 19.0% ▲2004년 23.7% ▲2005년 27.3% ▲지자체 31.7%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해고·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할 경우,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



신안 앞바다 표류 北 유조선 신안군 흑산면 거제도 서쪽 29km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선적 1천38t 유조선 '대흥 6호'. 목포해경은 30일 잠수요원과 특공대원을 지원, 수중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4m 가량의 높은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 27일 북한 원상항을 출항, 남포항으로 가던 중 추진기에 그물이 걸려 사고가 났으며 30일 오전 11시에 해경에 구조요청을 해왔다. (목포해경공)

전남 모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로

올해부터 초·중·고 2,339곳

전남지역 학교급식 식재료가 100%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2천339곳 35만 2천여명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단가는 한가당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추가되는 평균 542원이며 대부분 현물로 공급하되 도서벽지나 소규모 학교 등은 현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농산물 공급 업체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사이에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부정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체명도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도비 및 시·군비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75억원이 늘어난 361억 7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문 소설 등 심의 포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졸속”

한국신문협회 비판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30일 종합일간신문의 소설과 만화, 광고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의 종합일간신문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한다”며 “법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혁당 재심사건’ 검찰,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방법이 ‘인혁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재심 사건 1심에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3일의 1심 판결이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공안1부는 이날 ‘인혁당 재심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당초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해도 무죄 판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수사 절차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돼 원상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연습뉴스

“F1대회 담배광고 걱정할 게 못된다”

전남도 “차·선수복장에만 사용” 일부 우려 제동

“F1 대회 담배광고 걱정 없다.” 오는 2010년 첫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전남도가 대회의 담배광고와 후원을 놓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남도는 F1 대회 참여 233개 기업(2005년 기준) 중 단 5개만이 담배회사이며 그 가운데서도 2007년에는 2개만 담배를 것으로 전망돼 우려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국 F1대회 운영사는 담배회사 후원을 검토한 바 없으며 2010년 대회시 한국을 찾는 참가팀이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

을 경우 경주차나 드라이버 복장에 상표를 사용하는 정도여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는 2010~2016년까지 전남에서 열릴 예정인 F1대회에 담배회사의 광고와 후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이 주도해 발의한 ‘F1 지원 특별법’이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 관련 시설 내에서 담배광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이의 금지를 주장했다.

/박치경기자unipark@kwangju.co.kr

흡연, 11가지 발암물질 담뱃갑에 표기하기로

관련법 개정안 제출

흡연에 따른 11가지 발암물질을 담뱃갑에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벤젠과 비소, 카드뮴 등 발암물질 11종을 담뱃갑 앞·뒷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경각심을 돋운다. 담배 한 개비에 4천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발암물질은 69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거나 발암물질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고 완전히 확인된 발암물질은 11종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세상 말세다 말세!

“영산강 간척지 분할 매각해야”

박홍수 농림부 장관, 전남도 임대 요구와 배치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해남 마산 1공구, 화원 1공구 등 영산강 3단계 간척지 처리 문제와 관련, 현지 농민 및 전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장기 임대 방식보다는 장기 분할 매각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30일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청와대에서 기자와 만나 “영산강 간척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은 10년, 20년 뒤에 다시 매각 문제가 불거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척지의 장기 임대보다는 장기 분할 매각이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척지 매각시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지가 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

기 위해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간척지는 대부분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다음달 2일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권에서 영산강 간척지의 장기 임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장관은 “간척지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서해안 광광역저도시(3프로젝트)에 편입되는 간척지 처리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120188
광주C.C
(주)대한상호신용금고
이장홍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골프회원증
No. J01510015
광주C.C
(주)간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김경애 (재혼)
나이: 37세(여)
키: 158cm
몸무게: 68kg
신체적특징
이미지 날고 눈이 썩어
물 맑히는 경성도시
리(장신자매)에게
• 옷치림·노랑색오리띠파카, 진형복 누비바지 (복합자)
• 잃어버린 장스 양동시종 근처 23일 오후 5시경 위 사람을 보신분이나 거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81)393-5774(장성해2차) 011-569-521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 TV방송출연 교수진 / 저자적강 ★

2월 1일 첫진도 (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을 1위! 새롬 행정고시학원 ☎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교정직특채

2월 8일 개강

시험예정일	6월경(예상)-2006년에는 6월18일			
시험과목	형사소송법/교정학(객관식필기)			
모집인원	900여명(예상)			
응시연령	1966. 1. 1. ~ 1987.12.31. (남성근무연도추가계산)			
신체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장 : 남자 165cm, 여자 154cm 이상 체중 : 남자 55kg, 여자 48kg 이상인 자 흉위 : 신장의 1/2이상인 자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이상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강의시간표	야간반 (19:00~22:00)	주말반	
	목	형사소송법	토	교정학개론
	금	교정학개론	일	형사소송법

2월 8일 19:00에 시험오리엔테이션 있음

국가직/지방직대비 [행정직·교육행정직·사회복지직]

문제풀이반 대개강

개강일자	2월 1일, 5일 (1개월완성형)	강의시간	월~금(18:00~22:00) 토(09:00~) 일요관례	강사진	노랑전 ALLSTAR팀
------	--------------------	------	---------------------------------	-----	--------------

메가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26-5050

파산폐지 공고

사 건 2003하합48(2003회5,6)파산선고 파 산 자 순관산업 주식회사
순천시 서면 선령리 256-5
구 파산법(2006.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3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주 문 :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07년 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 재 영
판사 강 주 현
판사 김 성 홀

파산폐지 공고

사 건 2004하합1(2003회1, 2)파산선고 파 산 자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31-2
구 파산법(2006.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3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주 문 :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07년 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 재 영
판사 강 주 현
판사 김 성 홀

“리더스하이” 입주자 모집공고 수정공고문

2007년 1월 25일자 남구청 건축과 제2115호(전월), 제2117호(월산)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2007년 1월26일자 광주일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대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착오(오다누락 등)가 발생하여 내용중 비로 집이 수정공고 하오니, 본입원중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주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2-364-2500)

● 누락부분공고

■ 신청자격 공업임령 (월산동 리더스하이)

구분	순 위	주 택 형	행 약 자 적	가 주 지 역	입주일지 및 시간	장 소	당첨지표
민	부 주 택	85㎡	다용도전용 모두 주택은 부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함 (당첨대상수 75%)	광주광역시	2007. 01.31 (수)	남 사 건분주역	2007. 02.02(금) (14:00)

■ 신청절차(월산동 리더스하이)
(1월 31일) 무주택우선공급 : 신청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하되 총별·동별·호수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에 따라 같은날 날짜에 접수하되,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 할 경우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순위 신청자에게 보완하여 통·호수 우첨함. * 우선공급 신청자미달시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입주자 신청방법 및 통·호수 결정 (월산동 리더스하이)

구분	신청 방법
무주택	-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건설사 제 1순위자와 함께 청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점함

■ 공동주택의 빌라나 설계 및 구조변경 (월산동 리더스하이)
- 224.1783(87.81%) 당초금액 3,138,000(3,138,000)수정 변경